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불변화사 이동과 주제성



영 어 교 육 전 공

이 경 민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불변화사 이동과 주제성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경 민

이경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25일



주심 문학박사 윤희수 (인)

위원 영어학박사 전춘배 (인)

위원 언어학박사 김은일 (인)

<목 차>

영문초록	i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6
1. 불변화사의 정의	6
2. 주제성	10
3. 연구방법	11
III. 분석결과 및 토의	18
1. 목적어의 음절길이	18
2. 목적어의 언어형태	23
3.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	31
IV. 결론	39
참 고 문 헌	41

<표 목 차>

<표 1> Chen(1986)의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18
<표 2>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19
<표 3> 평균 음절수 비교	22
<표 4> Chen(1986)의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비교	23
<표 5>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비교	24
<표 6> 목적어가 한정명사인 경우, 평균 음절수 비교	26
<표 7> Chen(1986)의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비교	32
<표 8>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 비교	32
<표 9> 평균 지시적 거리 수치 비교	38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and Topicality

Lee, Kyung M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in the discourse level. According to Chen(1986), under otherwise similar conditions, the hypothesis is that particle movement is more likely to occur when the object stands high in 'participant continuity' with the preceding discourse. Based on Chen(1986)'s hypothesis, 114 data sets from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were examined to confirm the hypothesis.

There are three closely related variables that are involved in 'participant continuity' of the object: (i) the length of the object; (ii) the type of the object; and (iii) the distance to its antecedent in the discourse (referential dist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generally similar to Chen's findings. The more syllables the object contains, the less likely the particle movement is to occur. As far as the type of the object is concerned, 'Definite NP(noun phrase)' causes more frequent particle movement compared with 'Indefinite NP'. And, when the object appears nearer its antecedent,

particle movement is preferred. While most phrasal verbs in the text could be properly explained by Chen's criteria, some examples in the text didn't fit into them.

In sum, the height in participant continuity to the preceding discourse is a significant indicator for particle movement. When the object stands high in 'participant continuity', it is likely to be referred more often in the discourse. Consequently, it becomes 'Old Information', which can be considered 'topical' in the discourse. That is, the 'topicality' of the object plays a key role in particle movem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구조의 언어 표현이 사용된다. 이 때, 화자와 청자 간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표현구조는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떠하며, 그 상황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표현구조에 대해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는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영향으로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는 실제 담화 속의 맥락을 소홀히 함으로써 담화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자연언어에 대한 설명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인간의 언어능력이란 올바른 문장 형성을 위한 문법 규칙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용인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상황에서 그에 알맞고 적합한 언어표현을 골라 쓸 수 있는 담화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장의 문법구조를 판단하는 담화분석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담화의 가장 큰 목적이 정보전달이라고 할 때,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현실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보편적 정보(general information),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황적 정보(situational information), 발화시 전·후로 전달되는 문맥적 정보(textual information)가 있다. 이러한 정

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시 청자와 관련하여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별된다(정희자 1999). 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어진 정보 또는 구정보라 하며 화자가 새로이 보태는 지식을 신정보라고 한다. 현저성(salience)을 신정보와 주어진 정보의 구별기준으로 삼은 연구는 Chafe(1972)를 들 수 있다. Chafe(1972)는 문체의 지시대상(referent)이 선행문에서 언급되었거나 담화 상황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화시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을 주어진 정보(구정보), 화자가 말을 함으로써 청자의 의식 속에 소개되는 것을 신정보로 보았다.

현대 영어의 동사 구조를 살펴보면,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동사와 불변화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동사+불변화사 결합구조(Verb-Particle Combination)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원어민의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을 살펴보면 기본 동사를 이용한 구동사(phrasal verb)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동사란 ‘동사+불변화사’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불변화사 이동이란 이러한 구동사 구조에서 불변화사가 동사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cf. Bolinger 1971, Dixon 1982, Cumming 1982). 다음은 불변화사 이동의 예를 살펴본 것이다.

(1) a. John *picked up* the book.

b. John *picked* the book *up*.

예문 (1a)는 불변화사가 이동하지 않은 구문이고 (1b)는 불변화사가 이동한 구문이다. 두 가지 구문이 모두 정문이므로 어떤 담화·화용적 맥락에서 (1a)와 (1b)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많은 영어교사들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불변화사의

이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불변화사 이동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외의 명사구일 경우에는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2) a. They *called* him up.

b. *They *called* up him.

예문 (2)와 같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기에 정보성의 관점에서 구정보가 되고 구동사인 call up은 신정보가 되어 불변화사 이동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구정보가 신정보보다 선행해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목적어가 강세를 받는지 여부와 목적어 길이 등과 같은 다른 담화적 요인들에 의해 불변화사 이동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Morgan(1982)은 동사와 불변화사의 구조를 담화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 반문을 하며, 통사적이고 구조적으로만 설명하였다. 반면, 그의 입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사와 불변화사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담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한 학자로는 Hopper(1983)가 있다. 이에 기능주의 학자인 Chen(1986)은 Hopper(1983)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밝히면서,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닌 경우 불변화사는 그 목적어 뒤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냥 동사 뒤에 그대로 위치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능한 어순 중에 화자나 청자에게 더 선호되는 어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담화·화용적 접근을 통하여 불변화사 이동을 설명하였다.

(3) a. He *gave away* all the books that he collected when he was in Europe.

b. *He *gave* all the books that he collected when he was in

Europe *away*.

예문(3)과 같이 목적어 길이가 긴 경우에는 불변화사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담화에서 목적어를 신정보로서 소개할 때는 그 목적어의 설명을 위해 수식어구들이 붙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성의 관점에서 신정보가 되는 것이다.

- (4) a. John *picked up a book* and threw it out the window.
b. John *picked a book up* and threw it out the window.
- (5) a.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the book up* and went upstairs.
b.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up the book* and went upstairs.

위의 모든 예문들은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나 Chen(1986)의 조사에서 대다수의 원어민들이 예문 (4a)와 (5a)를 (4b)와 (5b)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대답했다. 예문 (4a)에서 a book은 신정보로 나왔다가 뒤에서 it으로 대체되면서 구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불변화사 up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5a)에서도 a dark-covered book이 먼저 신정보로 나왔다가 뒤에서 the book으로 대체되면서 구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불변화사 up이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로써 담화 속에서 목적어의 주제성이 또한 불변화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Chen(1986)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원어민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구동사에서 불변화사의 이동을 일으키는 담화·화용론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해당 요인들이 주제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불변화사(particle)의 정의, 주제성(topicality) 및 Givón(1983b)과 Chen(198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제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언어분석 자료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인 Chen(1986)의 결과와 비교 토의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한 언어 자료는 Stephen R. Covey(2004)(ed.)의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하 *7 Habits*)이다. 이를 언어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인용문이 많아 관점이나 시제의 변화가 잦은 소설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글이 전개되어 관점이나 시제의 변화가 적은 에세이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분석 대상이 한 권으로 한정되어 여러 장르의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구 분석 결과를 영어 전체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동사+불변화사 결합구조(Verb-Particle Combination)에서 불변화사가 동사로부터 분리되어 이동되는 불변화사 이동에 영향을 주는 담화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불변화사의 정의와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 중요한 주제성(topicality)에 관해 알아보고, 그 주제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목적어의 음절길이, 목적어의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에 대한 개념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불변화사의 정의

불변화사는 그 구조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학자들마다 조금씩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변화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almer(1974)에 따르면 불변화사(particle)는 전치사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의미상으로 불변화사와 전치사를 구분짓는 기준은 전치사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방향 또는 의미가 관용적일수록 전치사라기보다는 불변화사인 것으로 본다. 또한 형태상으로 불변화사는 목적어가 생략된 전치사와 같은데 이렇게 볼 때 전치사로부터 불변화사의 관계는 일종의 연속성을 형성하는 진화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Jespersen(1961)은 외형은 똑같지만 문장 내의 역할이나 문법 구조가 전혀 달라서 혼동을 일으키는 부사와 전치사 같은 품사들을 불변화사로 분류

한다. 이들은 접속사, 감탄사와 함께 문장 내에서 아무런 형태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단지 문법적 기능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어 칭한 것이 불변화사이다.

(6) a. He got up early.

b. Climb up the wall.

(6a)에서의 ‘up’은 부사이고 (6b)에서의 ‘up’은 전치사이다. 이와 같이 한 단어가 형태 변화 없이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불변화사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는다.

Akmajian & Henry(1975)는 동사가 전치사와 결합하여 동사적 표현을 이루었을 때, 이 전치사가 동사에서 분리되어도 바른 문장일 경우, 이동 가능한 전치사를 불변화사라고 부르고 있다.

(7) a. He **ran** up a big hill.

b. He **ran** up a big bill.

(8) a. *He **ran** a big hill up.

b. He **ran** a big bill up.

예문 (7)의 두 문장에서 ‘up’을 각각 동사와 분리하여, 목적어 ‘a big hill’과 ‘a big bill’의 뒤로 이동시키면 예문 (8)과 같이 되는데, (8a)에서는 ‘up’을 ‘a big hill’의 뒤로 이동시킬 경우 비문이 되는데 그것은 이 문장의 ‘up’이 ‘위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b)에서는 ‘up’이 ‘완전히’라는 부사로서 동사 ‘ran’과 분리되어 ‘a big bill’의 뒤로 이

동하여도 올바른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 (8b)의 ‘up’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것을 불변화사라고 보는 것이다

Quirk *et al*(1972)는 ‘타동사+부사(transitive verb+adverb)’로 구성된 구동사의 목적어가 문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의미의 변화도 없이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할 수 있을 때, 그 부사(adverb)를 불변화사(particle)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 a. John **picked up** the book.

b. John **picked** the book **up**.

위의 예문 (9)에서와 같이 문법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와 이동되는 구조가 모두 가능할 때, 이 때, ‘up’을 구동사의 불변화사로 보고 있다.

Celce-Murcia and Larsen-Freeman(1999)은 두 가지 순차적 테스트를 통하여, 분리 가능한 구동사와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 그리고 동사+전치사 구문으로 분리하고 있다.

(10) a. Peter **looked up** the new word.

b. Peter **looked at** the newspaper.

c. Peter **looked into** the matter.

예문 (10)은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목적어가 동사와 불변화사 또는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있느냐에 따라 분리 가능한 구동사를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 전치사 구문과 구분하고 있다.

- (11) a. Peter **looked** the new word up.
b. *Peter **looked** the newspaper at.
c. *Peter **looked** the matter into.

이런 통사적 테스트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11a)는 분리 가능한 구동사로 구분되었다. 다음은 (11b)와 (11c)중에서 어느 것이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이고 어느 것이 전치사 구문인지에 대한 구분이 남게 된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11b)와 (11c)에서 해당 요소를 wh의문문 앞으로 전치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2) a. At what did Peter look?
b. *Into what did Peter look?

(12a)에서처럼 wh의문문 앞으로 요소가 이동 가능한 것은 전치사구이고, (12b)에서처럼 wh의문문 앞으로 요소가 이동 불가능한 것은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구조 중에서 (11a)와 같은 분리 가능한 구동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때 불변화사의 위치는 동사 바로 뒤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뒤로 이동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변화사가 목적어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이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성

담화의 주요한 목적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주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 전달은 담화 상황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화자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문장을 엮고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달하는 정보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도가 모두 같으면 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화자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중요한 정보에 청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적절한 화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보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전달 내용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화제는 화자가 선정하지만, 청자는 그것에 의해 주목의 방향이 한정되어 전달 내용의 이해가 쉬워지는 효과를 갖는다. 화제가 하나 선정되어 담화에서 처음 언급이 되면 그것은 처음 청자에게 소개됨으로써 신정보(New Information)가 되고, 그 화제가 다음 담화 이전까지 언급이 많아지면 구정보(Old Information)가 된다. 언급이 많다는 것은 그 문장에서 있어서는 주제적(topical)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신정보이고 구정보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있어 왔다. Halliday(1970)는 구정보란 반드시 앞의 문맥에서 말한 것(previously mentioned)일 필요는 없고, 앞의 문맥에서 청자가 이끌어 낼 수 있는(derivable) 정보라고 한다. 이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Halliday(1970)는 ‘예측되는(predictable)’이라든가 ‘복원될 수 있는(recoverable)’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것이다. 즉, 앞의 문맥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청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고 화자가 판단하는 사항까지 구정보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정보와 구정보

의 성격은 흑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degree)의 문제인 것이다.

명백한 것은, 더 많이 언급되어지거나 예측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구정보가 신정보에 비해 보다 주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불변화사 결합구조’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지니는 주제성(topicality)의 정도가 불변화사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때, 주제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부터 살펴볼 목적어의 음절길이, 목적어의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이다.

3. 연구방법

Chen(1986)은 불변화사의 이동에 있어 문법적 환경이 비슷할 경우, 언제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문이 선호되고 또 언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문이 선호되는지를 담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은 목적어가 선행 담화에서 언급이 된 구정보로서 주제적일 때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적어가 주제성이 높은 구정보라는 것은, 이미 언급이 되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목적어 음절 길이가 비교적 짧을 것이고, 목적어의 부호화되는 형태도 비한정 명사구보다는 이미 언급된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한정 명사구 형태일 것이며, 목적어와 선행하는 담화속의 동일 지시 대상과의 거리(지시적 거리) 또한 짧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주제성과 연관되는지는 아래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 음절의 길이

목적어의 길이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는 목적어의 단어 길이 분석과 음절 길이 분석이 있는데, Chen(1986)에 의하면 음절 길이가 짧을수록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 구정보이며 주제성이 높아 불변화사 이동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방법에 따라 음절 길이만을 측정하기로 한다.

(13) a. We are limited, but we can push back the borders of our limitations. (7 Habits, p.123)

b. They don't know how to set up a full delegation so that another person is committed to achieve results. (7 Habits, p.173)

위 (13a)에서는 목적어가 'the - bor-ders - of - our - li-mi-ta-tion'으로 음절수가 '9'이고 (13b)는 'a - full - de-le-ga-tion'으로 음절수가 '6'이다.

목적어의 음절 길이가 짧을수록 구정보이며 목적어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 길어질수록 신정보로 본다. 이는, 목적어의 길이가 비교적 긴 것은 신정보로서 어떤 정보를 처음 소개함으로 인하여 길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선행 담화에서 언급이 되어 이미 구정보가 된 것은 짧고 간단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Givón(1983b)의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 목적어의 언어형태

Chen(1986)은 목적어의 언어형태를 대명사, 한정사구, 고유명사, 비한정사구로 나누어 이들의 주제성에 따라 불변화사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Chen(1986)은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불변화사 이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본 논문에서도 Chen(1986)의 언어형태 분류에 기초하여 목적어의 언어형태를 한정 명사구(정관사명사구, 소유격형 명사구, 지시사 명사구), 고유명사, 비한정 명사구(절 포함)의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비한정 명사구에 포함되는 ‘절(clause)’이란 ‘that’, ‘what’과 같은 접속사로 시작되고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 문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구문을 말한다.

이제, 다양한 언어형태의 목적어를 취한 구동사의 예를 살펴보자.

- (14) a. “Clean your room. Button your shirt. **Turn down the radio.**”
[정관사 명사구] (7 *Habits*, p.189)

- b. In our home, we **put our mission statement up** on a wall in the family room so that we can look at it and monitor ourselves daily. [소유격형 명사구] (7 *Habits*, p.138)

- c. So he ran into the house and came back with two sacks. He handed me one. “Will you **pick that stuff up?**” [지시사 명사구] (7 *Habits*, p.178)

- d. When it was over, I **picked Sean up** in my arms, carried him

out to the car and laid him in the back seat. [고유명사] (7 *Habits*, p.192)

e. Money-centered people often **put aside family or other priorities**, assuming everyone will understand that economic demands come first. [비한정 명사구] (7 *Habits*, p.113)

f. If you haven't really given serious thought to the roles in your life, you can **write down what immediately comes to mind**. [절] (7 *Habits*, p.162)

이후의 결과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위의 예문에서 한정 명사구에 속하는 (14a)의 정관사 명사구, (14b)의 소유격형 명사구, (14c)의 지시사 명사구와 (14d)의 고유명사 형태를 가지는 목적어일수록 구정보로서 높은 주제성을 보이며 목적어가 (14e)처럼 비한정 명사구이거나 (14f)와 같이 길이가 긴 절일수록 주제성이 낮고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은 신정보로 여겨진다(Givón 1983b).

다. 지시적 거리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란 담화 속에서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사(antecedent)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하나의 등장인물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에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일 지시대상이 맨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때 거리란 절의 수를 의미하며, 절은 아래 예문에서 ‘ / ’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다.

지시적 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절’의 개념은 앞서 언어형

태를 말할 때의 ‘절’과는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알려준다. 여기서 지시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은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본동사를 포함하는 절(finite clause)는 물론, 부정사, 분사, 동명사와 같은 준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nonfinite clause)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a. Suppose / you wanted / to arrive at a specific location in central Chicago. (7 *Habits*, p.23)

b. It says / if you want to / to have a happy marriage, / be the kind of person / who generates positive energy [...] / rather than empowering it. (7 *Habits*, p.43)

c. The spirit of Win/Win had significantly increased [...] / releasing enormous human energy and talent. (7 *Habits*, p.230)

시제를 포함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은 일반적이므로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포함하는 절을 살펴보겠다. (15a)와 (15b)에서, to 부정사에도 동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절로 간주하며, (15b)에서는 동명사도 동사로 간주하여 지시거리 측정을 위한 단위절로 포함시킨다. (15c)에서는 분사를 포함하고 있어 역시 절로 간주한다.

이제 지시적 거리 측정 방법을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6) a. This fable is a story of a poor farmer/ who one day discovers

in the nest of his pet goose *a glittering golden egg*_i. / At first, he thinks / it must be some kind of trick. / But as he starts / to throw *the egg*_i aside, [...]. (7 *Habits*, p.52)

b. Chasing after the poisonous snake / that bites us / will only drive *the poison* through our entire system. / It is far better / to take measures immediately / to get *the poison* out.
(7 *Habits*, p.91)

위의 (16a)에서 마지막 줄의 ‘the egg’는 앞 문맥의 동일 지시대상인 둘째 줄의 ‘a glittering golden egg’와 4개의 절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정관사 명사구 ‘the egg’의 지시적 거리는 ‘4’가 된다. 마찬가지로 (16b)의 마지막 줄에 있는 ‘the poison’도 동일 지시 대상이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세 번째 절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the poison’의 지시적 거리는 ‘3’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Givón(1983a)을 따라서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거나 적어도 이전의 20개 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대상에는 항상 ‘20’이라는 수치를 부여하였다. ‘20’이라는 수치는 무한수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화자의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질 수 있는 단기 기억 파일이 이 지시적 거리 측정법과 심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근거로 최대의 거리를 ‘2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떤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 20절 이전에 언급된 대상과 같은 정도로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Givón(1983b)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지시적 거리는 동일 지시대상이 떨어진 거리에 따라 최소 1에서부터 최대 20까지의 수치가 부여된다.

지시대상의 지시적 거리는 낮을수록 그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어진 텍스트에서 그 지시대상의 주제성(topical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시대상의 지시적 거리가 클수록 그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지시대상은 텍스트에서 주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분석결과 및 토의

분석 과정에서 명사 목적어를 취한 구동사가 총 114개 발견되었으며, 이중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이 16개, 이동되지 않은 문장이 98개였다. 여기에서는 3가지 측정방법 즉, 목적어의 음절길이, 언어형태의 종류,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에 따라 어떤 담화 문맥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1. 목적어의 음절길이

Chen(1986)의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본 후, 이를 본 연구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Chen(1986)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Chen(1986)의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 음절수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53	49.5%	54	50.5%	107
3-5	26	31.0%	58	69.0%	84
6-10	1	3.0%	34	97.0%	35
11-15	0	0%	9	100%	9
16--	0	0%	4	100%	4

Che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적어의 음절수가 ‘1’ 또는 ‘2’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예문의 비율이 49.5%으로 가장 높으며, 그보다 음절이 길어질수록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음절수가 ‘11’ 이상인 경우는 불변화가 전혀 이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절수가 많아질수록 불변화사는 이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본 논문의 연구 자료인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발견된 구동사의 목적어 음절수와 불변화사 이동간의 관계를 <표2>에서 살펴보자.

<표2>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 음절수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10	45.5%	12	54.5%	22
3-5	6	12.0%	44	88.0%	50
6-10	0	0%	24	100%	24
11-15	0	0%	5	100%	5
16--	0	0%	13	100%	13

<표2>의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표는 Chen(1986)의 방식으로 음절수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음절수가 ‘1-2’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예문이 45.5%로 Chen의 49.5%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음절수 ‘3-5’ 구간에서는 Chen의 결과 31.0%에 훨씬 못 미치는 12.0%에서만 불변화사의 이동이 있었다. 또한 음절수가 ‘6-10’인 경우에도 Chen의 연구에서는 3.0%가 불변화사 이동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절수 ‘6’ 이상의 목적어를 가진 구동사에서는 불변화사의 이동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절이 길어질수록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예문은 45.5%에서부터 12.0%, 0%로

줄어든 반면,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예문의 비율은 목적어의 음절이 길어질수록 54.5%, 88.0%, 100%로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변화사 이동이 잦은 경우, 즉 목적어의 음절수가 '1-2'일 때는 이미 앞 문맥에서 언급되어진 것이므로 구정보에 해당되어 간략하게 언급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짧은 것이다. 반면, 목적어 음절수가 '6' 이상인 경우의 예문들은 목적어를 신정보로 소개하기 위해 목적어 뒤에 수식 어구들이 붙게 되면서 목적어가 길어지게 된 것이었다. 결국, 구정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목적어의 길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 대상 언어 자료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을 소개하는 예문이다.

- (17) a. We have such a tendency to rush in, to fix things up with good advice. [1음절] (7 *Habits*, p.237)
- b. But as he starts to throw the egg aside, he has second thoughts and takes it in to be appraised instead. [2음절] (7 *Habits*, p.52)

위의 (17)의 예문들은 목적어가 각각 'things', 'the egg'로 음절수가 각각 '1'음절과 '2'음절의 비교적 짧은 형태이며, 이러한 경우 구동사의 불변화사들은 목적어의 뒤로 이동되는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표1>의 Chen(1986)의 분석 결과, 목적어 음절수가 '3-5'인 구간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의 비율이 31.0%인데 반해, 본 논문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표2>의 음절수에 따른 분포 비교 결과로는 음절수가 '3-5'인 경우

12.0%의 문장에서만 불변화사가 이동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절수 ‘3-5’ 범위에 속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 (19) a. Each day you go to the construction shed and **pull out the blueprint** to get marching orders for the day. [3음절] (7 *Habits*, p.99)
- b. "Go get a haircut. And don't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3음절] (7 *Habits*, p.189)
- c. The first task is to **write down your key roles.** [3음절] (7 *Habits*, p.162)

위의 (19)의 예문들은 목적어의 음절수가 각각 ‘3’으로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음절수가 적어서 주제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 주제성과 관련하여 음절수 이외에도 언어 형태, 지시적 거리와 같은 다른 변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함.)

이제 음절수가 ‘11’ 이상으로 상당히 길어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8) a. You can **pick up quick, easy techniques that may work in short-term situation.** [14음절] (7 *Habits*, p.22)

- b. The managers are behind them, [...] and setting up working schedules and compensation programs for machete wielders. [16음절] (7 Habits, p.101)

예문 (18a)는 목적어에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형용사절이 붙어 전체 음절 길이가 길어졌고, (18b)는 두 개의 목적어가 and로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전치사구까지 연결되어 있어 음절수가 많아진 것이다. 담화에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소개되면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목적어가 긴 수식어와 함께 쓰여 ‘heavy’할 때는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조성식 1990: 540).

본 연구 분석 결과가 Chen(1986)의 분석 결과와 음절 길이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음절수를 나누지 않고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과 이동되지 않는 문장들의 음절수를 각각 평균을 내어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평균 음절수 비교

불변화사	이동된 문장	이동되지 않은 문장
평균 음절수	2.44	7.27

위의 <표3>과 같이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에서 목적어의 평균 음절수는 2.44개로 나타났고, 이동되지 않는 문장에서 평균 음절수는 7.27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의 음절수 평균 수치 비교 결과도 앞의 <표2>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목적어 음절 길이가 짧을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고, 음절 길이가 길어질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덜 선호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목적어의 언어형태

구동사의 목적어의 언어형태가 주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하나의 화제가 선정되어 담화에서 처음 언급되면 신정보이므로 주제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목적어는 주로 비한정 명사구의 형태를 취한다. 반대로 앞의 문맥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화자와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은 구정보로서 다시 언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만큼 주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한정 명사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우선, 목적어의 언어형태와 불변화사 이동간의 관계를 밝힌 Chen(1986)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표4>

Chen(1986)의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 언어형태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한정명사구	67	42.0%	90	58.0%	157
고유명사	3	33.0%	6	67.0%	9
비한정명사구	9	15.5%	58	84.5%	67

위의 <표4>에서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일 때 42.0%, 고유명사일 때 33.0%, 비한정 명사구일 때는 15.5%의 문장에서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되지 않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 또한 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본 연구의 언어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5>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 언어형태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한정 명사구	9	17.3%	43	82.7%	52
고유명사	2	100%	0	0.0%	2
비한정 명사구	5	8.3%	55	91.7%	60

고유명사 > 한정명사구 > 비한정 명사구 (불변화사 이동의 선호도)

분석 결과,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에 속하는 형태를 가질 때, 17.3%의 문장에서 불변화사가 이동하였다. 이는 비한정 명사구를 목적어로 가지는 문장 중 8.3%에서만 불변화사가 이동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이다. 목적어가 고유명사인 문장은 2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불변화사가 이동하였고, 반대로 목적어가 절인 경우에는 100%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았다. 이는 Chen(1986)의 연구에서 목적어가 고유명사일 때 33.0%의 문장에서만 불변화사가 이동된 것과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발견된 고유명사의 수가 적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자.

- (20) a. As a result, many people have become turned off by time management programs and planners that make them feel too scheduled, too restricted, and they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7 *Habits*, p.150)

- b. So he ran into the house and came back with two sacks. He handed me one. “Will you **pick that stuff up?**” (7 *Habits*, p.178)

(20)의 예문에서 목적어는 모두 음절수가 ‘2’로 짧고 또 언어형태가 주제성이 높은 한정 명사구에 포함되는 정관사 명사구와 지시사 명사구이므로 불변화사가 이동된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면, 다음은 위 예문 (20)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예문이다.

- (21) a. But another person in the group asked, “Who **picks up the pieces?**” (7 *Habits*, p.58)

- b. It was very cold that night, so I **took off my coat** and gently arranged it over and around him. (7 *Habits*, p.192)

- c. Certainly you can **pick up that room** better than a child, but the key is that you want to empower the child to do it.
(7 *Habits*, p.178)

위 예문(21)의 목적어는 모두 주제성이 높은 한정 명사구이며 음절수가 각각 ‘2’ 또는 ‘3’으로 짧아 예문 (20)의 목적어 길이와 비슷하고 따라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표5>에 따르면,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임에도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문장이 82.7%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난 문장에 비해 많

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변화사 음절수의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인 경우, 평균 음절수 비교

불변화사	이동된 문장	이동되지 않은 문장
평균 음절수	2.89	6.81

위의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어의 평균 음절수는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에서 2.89개, 이동되지 않은 문장에서 6.81개로 나타났다. 이로써,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임에도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문장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 목적어의 음절수가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목적어의 언어 형태보다는 음절수가 불변화사 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22) a. “Stephen, when you point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the second month, [...]”

[13음절] (7 Habits, p.102)

b. And I found myself gradually loosening up my commitment to the structure of the class and [...]. [11음절] (7 Habits, p.265)

(22a)는 목적어가 정관사 명사구로서 한정 명사구에 속하며 주제성을 가지

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 음절수가 '13'으로 너무 길어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2b)도 목적어의 음절수가 '11'로 상당히 길어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목적어가 고유명사일 때, Chen(1986)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문장보다 이동되지 않는 문장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발견된 2개의 문장에서는 모두 불변화사가 이동되었다.

(23) a. There are other people who spend [...], thinking they're in Quadrant I_i. [...] They also **shrink** Quadrant I_i down to size by spending more time in Quadrant II. (7 *Habits*, p.153)

b. In the middle of the movie, Sean_i, who was then four years old, [...]. When it was over, I **picked** Sean_i **up** in my arms, carried him out to the car and laid him in the back seat.

(7 *Habits*, p.192)

위 (23a)와 (23b)의 목적어인 'Quadrant I'과 'Sean'은 이미 앞 문맥에서 언급되어져서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며 다시 언급되어짐으로써 주제성이 높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음절의 길이 또한 짧아 불변화사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hen(1986)의 선행 연구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4>에 보듯이 목적어가 고유명사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문장이 67%로

1) 여기서 Quadrant I은 7 *Habits* 본문에서 어떤 사안을 중요성(importance)과 긴급성(urgency)에 따라 네 영역으로 나눈 matrix에서, 중요하면서 동시에 긴급한 사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한, Quadrant II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사안을 가리킨다.

이동되는 문장 33%에 비해 많았다. 이는 고유명사인 목적어가 해당 문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정보로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덧붙여지는 경우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24) Once he arrived, he sought out Nimit, the village headman.

(24)의 목적어 ‘Nimit’은 똑같은 고유명사라 할지라도 그 뒤에 ‘the village headman’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신정보로 소개되었다. Nimit이 청자와 화자의 의식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the village headman’이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맥상 고유명사가 구정보 목적어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신정보 목적어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희 2004: 29).

다음으로, 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인 경우를 살펴보자.

(25) a. One day he had a very tight schedule, [...] ,
including **picking up some books**, washing his car [...].
(7 *Habits*, p.169)

b. I **set up a big blackboard** and we wrote down our goals—the key things we wanted to do—and the jobs that flowed out of those goals. (7 *Habits*, p.175)

c. This Win/Win agreement **set up clear expectations** from the beginning on both our parts. (7 *Habits*, p.229)

위 (25)의 두 예문은 비한정 명사구를 목적어로 가지는 문장으로 <표5>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문장이 91.7%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는 문장 8.3%에 비해 비율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한정 명사구가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신정보로서 화제를 처음 소개할 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한정 명사구에 포함되어 통계상으로는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의 예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6) a. But I pointed out to him that he was allowing one individual and his weaknesses to distort his entire map of life[...]. (7 Habits, p.116)
- b. Undoubtedly, there have been times in each of our lives when we have picked up what we later felt was the wrong stick. (7 Habits, p.91)

위의 (26)은 구동사의 목적어가 that과 w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로 나타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발견된 모든 예문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단한 명사나 명사구보다 더 많은 설명을 담고 있는 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목적어가 선행 담화에서 언급이 없었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정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불변화사 이동과 관련하여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신정보, 구정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화자가 청자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하는 것은 당연히 정보의 신·구 구별과 관련이 있다. 보통 자주 언급된 구정보는 문장의 앞쪽 성분인 주어로서 나타나고, 그 뒤에 목적어로서 신정보가 소개된다. 주어는 이미 화제가 되어 자주 언급이 됨으로써 주제성을 가진 구정보가 된다. 따라서 구정보는 신정보에 선행하여 나타나고 신정보는 뒤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불변화사 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한 요소가 문미에 나타날수록 신정보가 되고 다른 요소보다 전달에 있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즉, 정보 가치가 높을수록 문장의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27) a. "John **pulled out** a present."

"Oh yes, I know which one it was."

b. "John **pulled a present** out."

"Oh yes, I know which one it was."

(27a)의 첫 번째 문장은 a present에 청자의 주의를 끌도록 의도된 것이다. 상대방에게 생소할 것으로 여겨 신정보로서 a present를 소개한 것이기에 두 번째 문장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7b)는 불변화사 out을 문미에 두어 상대방이 a present를 이미 알고 있다고 추측한 것이므로 이어지는 문장과 같은 반응은 나올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27a)의 첫 문장과 (27b)의 첫 문장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a present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27a)를, pull out이라는 동작을 더 중요한 정보로 여긴다면 (27b)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 반드시 불변화사를 이동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8) a. They called him up.

b. *They called up him.

대명사는 앞서 언급된 것을 다시 말할 때 쓰는 것이므로 구정보임은 명백하다. 그래서 보통 구정보는 지시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정관사를 수반하는 명사, this나 that 같은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대명사는 담고 있는 의미 내용이 일반 명사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문미에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둔다는 담화 원칙에 맞추기 위해 불변화사를 우측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목적어의 내용이 많고 길어지면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고 목적어가 우측에 위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9) a. I called up the man I met in Boston.

b. *I called the man I met in Boston up.

(29)에서 목적어 'the man I met in Boston'은 그 자체로도 의미 내용이 풍부하며 이러한 요소는 전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신정보로 간주된다. 구정보가 아니라면 목적어가 길 때 문미에 두는 것이 좋다(임금희 2004).

3.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란 담화 속에서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선행사(antecedent)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절을 단위로 하여 측정한다. 우선 Chen(1986)의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자.

<표7>

Chen(1986)의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비교

지시적 거리(절)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17	61%	11	39%	28
3-5	11	69%	5	31%	16
6-20	10	48%	11	52%	21
21-	42	24%	132	76%	124

<표7>을 보면 지시적 거리가 '1-2'일 때는 61%의 문장에서, '3-5'일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69%의 문장에서 불변화사가 이동하였다. 반면, 지시적 거리가 '6'을 넘어서면서는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시적 거리가 길어질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시적 거리가 '3-5'인 경우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문장의 비율이 69%로 '1-2'일 때보다 8% 더 많지만, 수치상의 차이가 미미할 뿐 아니라, 연구 대상 또한 한정되어 있었기에 유의미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번에는 본 연구의 언어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8>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 비교

지시적 거리(절)	불변화사 이동		불변화사 비이동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1	100%	0	0.0%	1
3-5	4	26.7%	11	73.3%	15
6-10	2	28.6%	5	71.4%	7
11-20	9	9.9%	82	90.1%	91

위의 <표8>은 Chen(1986)의 분석 방법을 따라 지시적 거리를 ‘1-2’, ‘3-5’, ‘6-10’, ‘11-20’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Chen과 약간 다른 것은 지시적 거리 ‘6-20’ 구간을 ‘6-10’과 ‘11-20’ 구간으로 세분화한 것과 앞서 연구 방법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었거나 적어도 이전의 20개 절 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20’이라는 수치를 부여하여 지시적 거리의 범위가 최소 1에서부터 20까지의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변화사 이동과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Chen(1986)의 결과와는 약간 달랐다. 지시적 거리가 ‘1-2’인 경우, Chen(1986)의 연구에서는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의 비율이 61%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예문이 발견되었는데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났으므로 100%가 되었다. 그리고 지시적 거리가 ‘3-5’인 경우는 전체의 26.7%에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Chen(1986)의 6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거리가 ‘6-10’인 구간에서 오히려 불변화사의 이동 비율이 28.6%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시적 거리가 ‘11-20’에 속하는 예문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 불변화사가 이동한 것은 9.9%로 역시 Chen(1986)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많이 낮았다. 이러한 비율상의 차이는 Chen(1986)의 연구와 본 연구에 있어 지시적 거리 비율을 측정한 구간이 다소 상이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덜 선호되었다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높은 것으로 앞 문맥에서 그 지시대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 지시대상이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높

은 주제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지시적 거리가 ‘20’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앞 문맥에서 그 지시대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지시대상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주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언급한 <표8>의 지시적 거리 분포를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가며 살펴보자.

(30) The Personality Ethic tells me / I could take some kind of dramatic action_i / shake things_i up, [...]. (7 Habits, p.41)

위의 예문(30)에서 목적어 ‘things’는 지시적 거리가 ‘1’일 뿐 아니라 음절수도 ‘1’로 작다. 비록 언어형태가 비한정 명사구이나 낮은 지시적 거리와 적은 음절수로 인해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났다. 이 예문이 위의 <표8>에서 지시적 거리가 ‘1-2’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발견된 유일한 예문이다. 이로써 지시적 거리가 ‘1-2’인 경우 불변화사의 이동이 100%가 되었다. 이번에는 지시적 거리가 ‘3-5’인 경우를 살펴보자.

(31) [...] / who one day discovers in the nest of his pet goose a glittering golden egg_i / At first, he thinks / it must be some kind of trick. / But as he starts / to throw the egg_i aside, / [...]. (7 Habits, p.52)

(31)에서 목적어인 ‘the egg’는 정관사 명사구로서 음절수가 ‘2’로 작으며, 지시적 거리 또한 ‘4’로 낮아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보자.

(32) a. [...] / that served a fantastic clam chowder_i / and was packed with customers everyday at lunchtime. / Then the business was sold, / and the new owner focused on golden eggs / —he decided / to **water down** the chowder_i. (7 Habits, p.58)

b. [...] / to saw down a tree_i. / "What are you doing?" / you ask. / "Can't you see?" / comes the impatient reply. / "I'm **sawing down** this tree_i." (7 Habits, p.287)

(32a)의 목적어 ‘this tree’는 음절수가 ‘2’이고 언어형태가 주제성이 높은 소유격형 명사구이며, 지시적 거리도 ‘5’로 낮은 편이다. (32b)의 목적어 ‘the chowder’ 역시 음절수가 ‘3’으로 적고, 언어형태가 정관사 명사구이면서 지시적 거리 또한 ‘5’로 낮아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두 예문 모두에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이러한 경우가 통계에서의 불변화사 이동 비율을 낮추는 것 같다.

이번에는 음절수가 적고 지시적 거리가 짧음에도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예를 보자.

(33) a. We are free / to choose our actions_i, / based on our knowledge of correct principles, / but we are not free / to choose the consequences of those actions. / Remember, / "If you **pick up** one end of the stick_i, / you *pick up* the other." (7 Habits, p.123)

- b. "Do you want / to see the mission statements / written by the people / who greeted you last night?" / He **pulled out a mission statement that they, themselves, had written that was interwoven with all the other mission statements**.
(7 Habits, p.141)

위의 (33a)와 (33b)는 둘 다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3'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33a)의 목적어 'one end of the stick'은 지시적 거리가 '5'로 낮은 편이지만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5'의 음절수와 비한정 명사구라는 언어형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3b)도 비슷한 경우로서, 목적어가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길어졌고 비한정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지시적 거리가 '3'으로 낮음에도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길어 주제성이 낮고 선행 담화와 의 관련성도 적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음절수가 작거나 정관사 명사구나 소유격형 명사구와 같은 한정 명사구 형태를 취하여 불변화사 이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4) a. ...[20절];or we interpret-we try to **figure people out**, to explain their motives, their behavior, based on our own motives and behavior, based on our own motives and behavior. (7 Habits, p.245)
- b. ...[20절] It's a vacation time, and a husband wants to **take his family out** to the lake country to enjoy camping and fishing.
(7 Habits, p.271)

위의 (34a)와 (34b)의 목적어는 모두 지시적 거리가 '20'으로 크고 비한정 명사구이지만 음절수가 '1'과 '4'로 크지 않기 때문에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20'인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난 예문 중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 (35) a. "I'm a full time nurse to the most miserable, ungrateful man you can possibly imagine. Nothing I do is good enough for him. He never expresses appreciation; he hardly even acknowledges me. He constantly harps at me and finds fault with everything I do. This man has made my life miserable and I often **take my frustration out** on my family. (7 *Habits*, p.73)

(35)에서 목적어의 음절수가 '4'로 적고, 한정 명사구이므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났다. 이 예문은 지시적 거리는 '20'인 것으로 분류되었으나, 내용상 앞의 네 문장 모두가 목적어 'my frustration'을 풀어서 표현한 것이므로 이들과의 담화 관련성이 높고 주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지시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하나의 표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시적 거리를 '20'으로 정한 것이다.

본 연구 언어 자료 분석 결과, Chen(1986)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 이번에는 Chen(1986)의 분석 방법과 달리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과 이동되지 않은 문장에서의 지시적 거리를 각각 평균 낸 수치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표9>

평균 지시적 거리 수치 비교

불변화사	이동된 문장	이동되지 않은 문장
지시적 거리 평균수치	13	17.3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예문에서 목적어의 평균 지시적 거리는 ‘13’으로 나타났고, 이동되지 않은 예문에서는 ‘17.3’으로 나타났다. 비록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불변화사가 이동된 예문의 평균치가 이동되지 않은 예문의 평균치보다 낮다. 이로써 담화에서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더 잘 일어난다는 전반적인 경향은 Chen(1986)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인 구동사의 목적어 음절 길이, 언어 형태, 지시적 거리와 각 요인들에 따른 목적어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세 가지 가설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목적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주제성이 높아지고 이때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더 선호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동사+부사’의 형태를 가지는 영어의 불변화사 구문에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날 때, 담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담화 속의 맥락을 중요시하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언어연구가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영향을 받아 구조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담화 상황에 따라 언어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에 기능주의 학자들은 화용적 측면에서의 불변화사 이동을 연구하였고, Chen(1986)은 불변화사의 이동이 특정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en(1986)의 방식을 따라 Stephen R. Covey(2004)(ed.)의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을 대상으로 구동사 목적어의 주제성을 음절 길이,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라는 요소를 이용해 계량화하였다.

목적어의 음절 길이를 측정한 결과, 음절수가 적을수록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구조가 선호되고 음절수가 많아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주제성이 높을수록 음절수가 적게 표현될 수 있고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목적어의 언어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일 때 100% 불변화사가 이동되었으나 이는 발견된 예문의 수가 극히 적어 고유명사인 목적어가 반드시 불변화사 이동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어 목적어가 정관사 명사구, 소유격형 명사구, 지시사 명사구와 같은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었고, 비한정 명

사구나 절의 형태를 취할 경우,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를 측정한 결과는 지시적 거리가 짧을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여기서 목적어의 음절 길이,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는 모두 그 목적어의 주제성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선행 담화에서 언급이 많이 될수록 구 정보이고 주제성이 높은 것이며, 주제성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목적어의 음절 길이가 짧고, 언어 형태는 한정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며, 지시적 거리는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는 Chen(1986)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예문은 앞서 제시한 일반적 경향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목적어의 음절 길이가 짧고 한정 명사구이며 지시적 거리가 짧은데도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현행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동사+부사’ 구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반드시 불변화사 이동이 일어나고 일반 명사구의 경우에는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구조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만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동사의 목적어가 비록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구라 할지라도 담화 속의 맥락에 따라서 불변화사 이동이 보다 선호되거나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참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무조건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담화·화용적 요인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서 구동사 표현과 함께 전달하여 이해시킨다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보다 실제적인 언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 영어 학습의 핵심인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박현숙. (2004).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불변화사 이동의 담화·화용론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임금희. (2004). 「불변화사 이동의 담화·화용적 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조성식. (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 Akmajian, A. and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C. (1983). Topic Continuity in Written English Narrative. In Givón, T. (1983a) (ed.). 313~342.
- Celce-Mursia, M. and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Rowley, MA: Newbury House.
- Chafe, W. (1972). *Discourse Structure and Human Knowledge*. In Carrol, J. B. and R. O. Freedle, (eds.) *Language Comprehens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ashington: John Wiley.
- Chen, Ping. (1986). Discourse and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Studies in Languages* 10-1: 79~95.
- Cumming, S. (1982). Figuring Particle Movement Out or Figuring Out Particle Movement. (ms). UCLA.
- Dixon, R. M. W. (1982). The Grammar of English Phrasal Verb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 1~42.
- Givón, T. (1983a)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inguistic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ivón, T. (1983b). *Introduction*. In Givón, T. (1983a) (ed.). 1~4.
- Halliday, M. A. K. (1970).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New York: Arnold.

- Hopper, P. (1983). *Ergative, Passive, and Active in Malay Narrative*. In Klein-Andreu, F. (1983) *Discourse Perspectives on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67~88.
- Jespersen. O. (1961).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organ, J. (1982). *Discourse Theory and the Independence of Sentence Grammar*. In Tannen, D. (1982) (ed.)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6~204.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